

당신을 배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베다니 공부방 안내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따뜻한 시간”

- 1월 13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1
- 2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2
- 3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3
- 4월 14일 (화) 20시 | 백종구 박사 •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의 해외선교와 독립선교의 발전

[온라인(Zoom) 참여 방법] 회의 ID: 867 2167 3476 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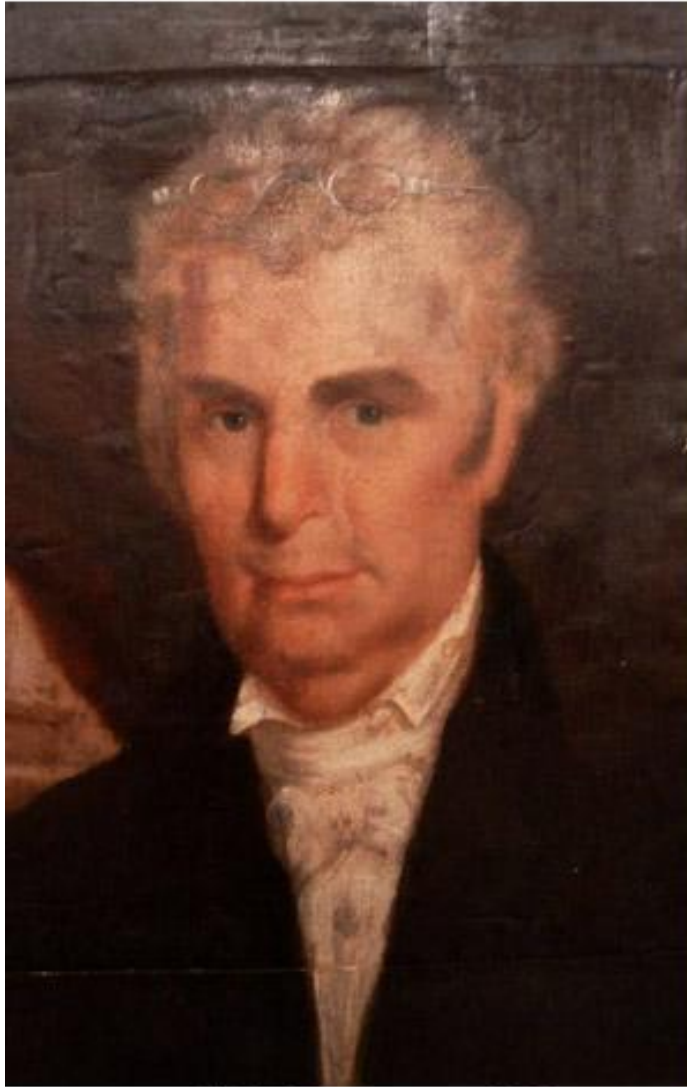
문의: 조기연 총무 (kiyonjo@hanmail.net)

환원운동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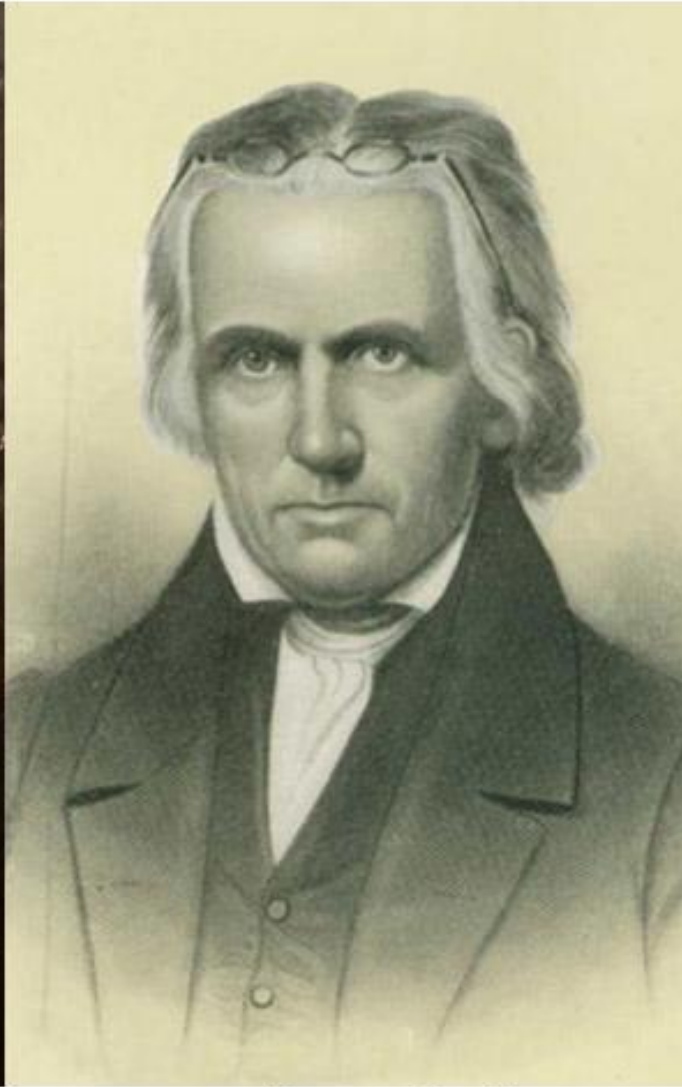


암호: 402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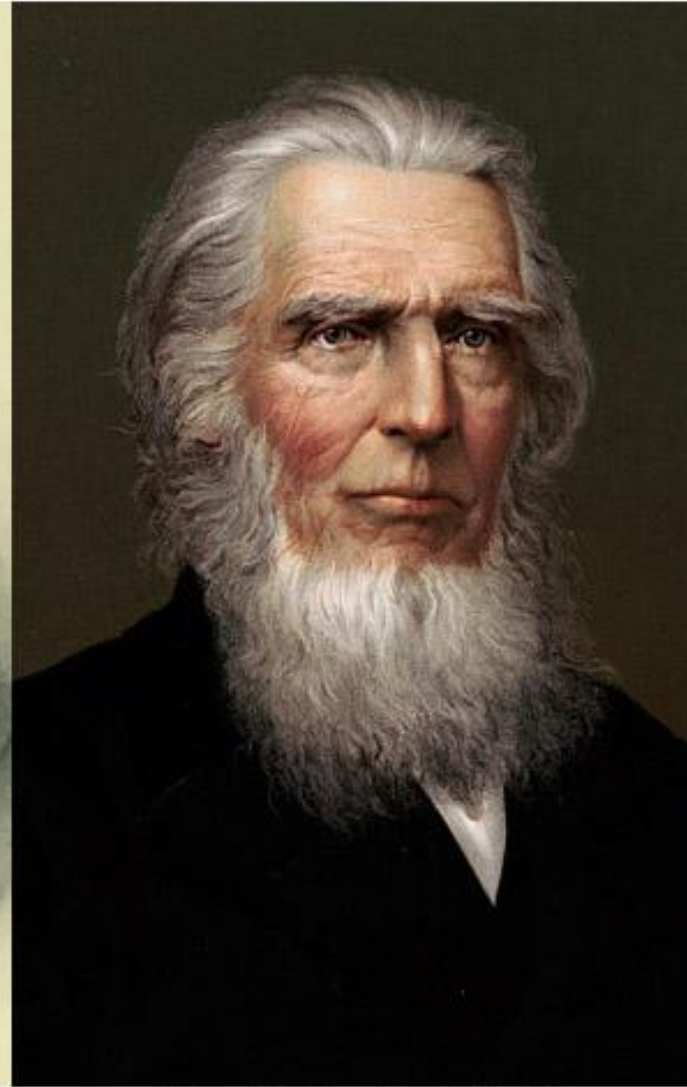
초기 스톤_캠벨 운동의 3대 문서



발톤 W. 스톤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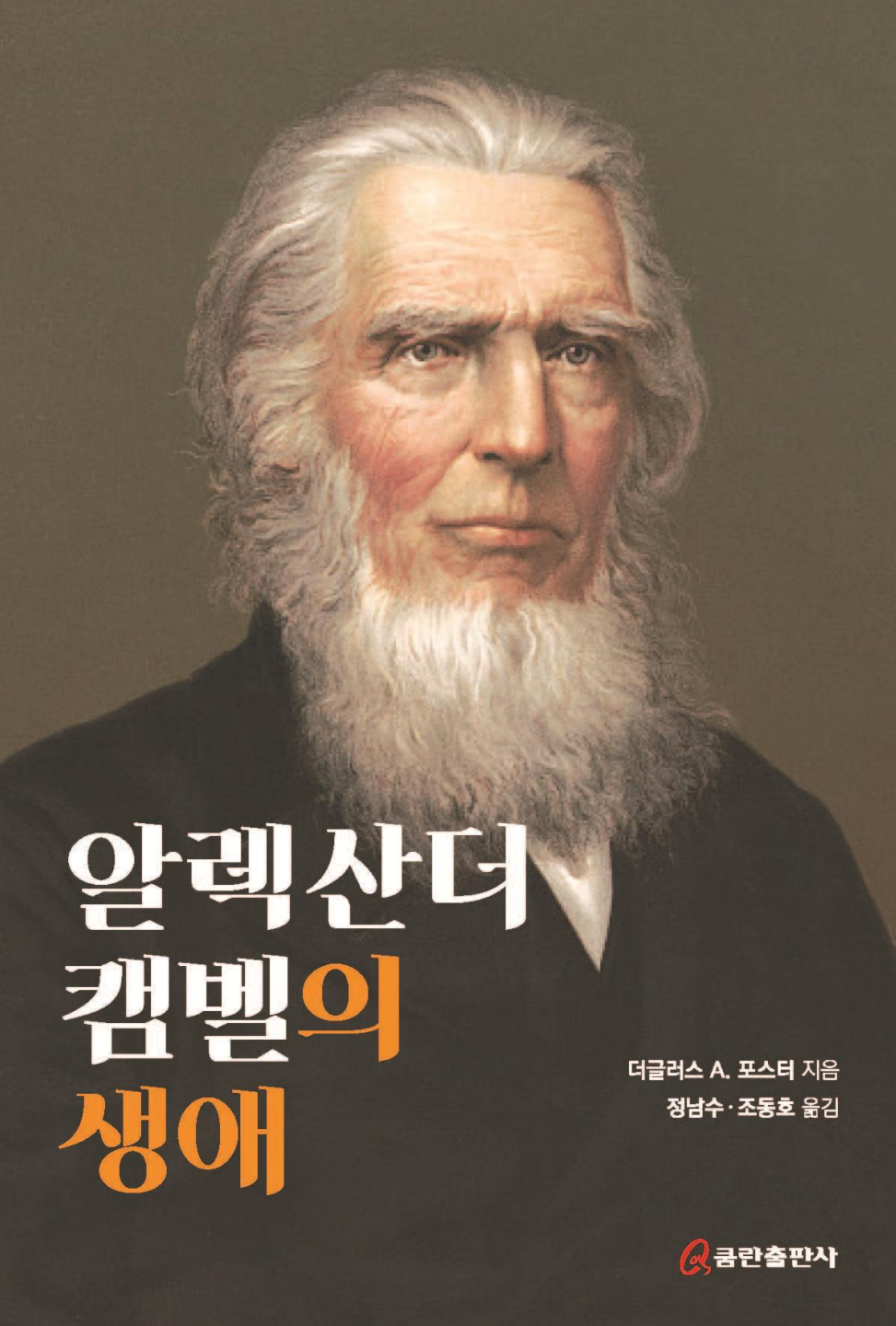


토마스 캠벨
선언과 제언




알렉산더 캠벨
율법에 관한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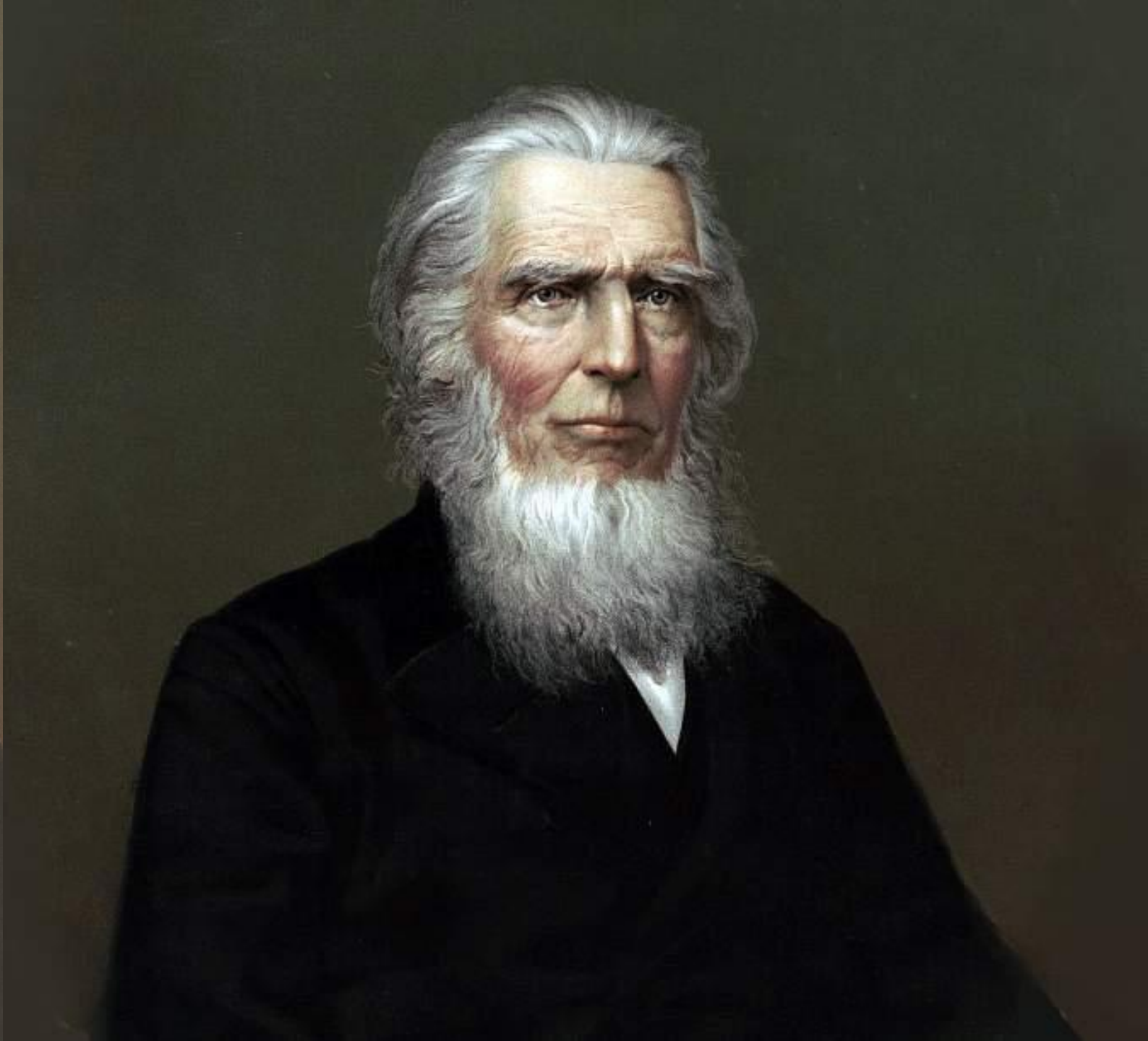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과 “율법에 관한 설교” 문서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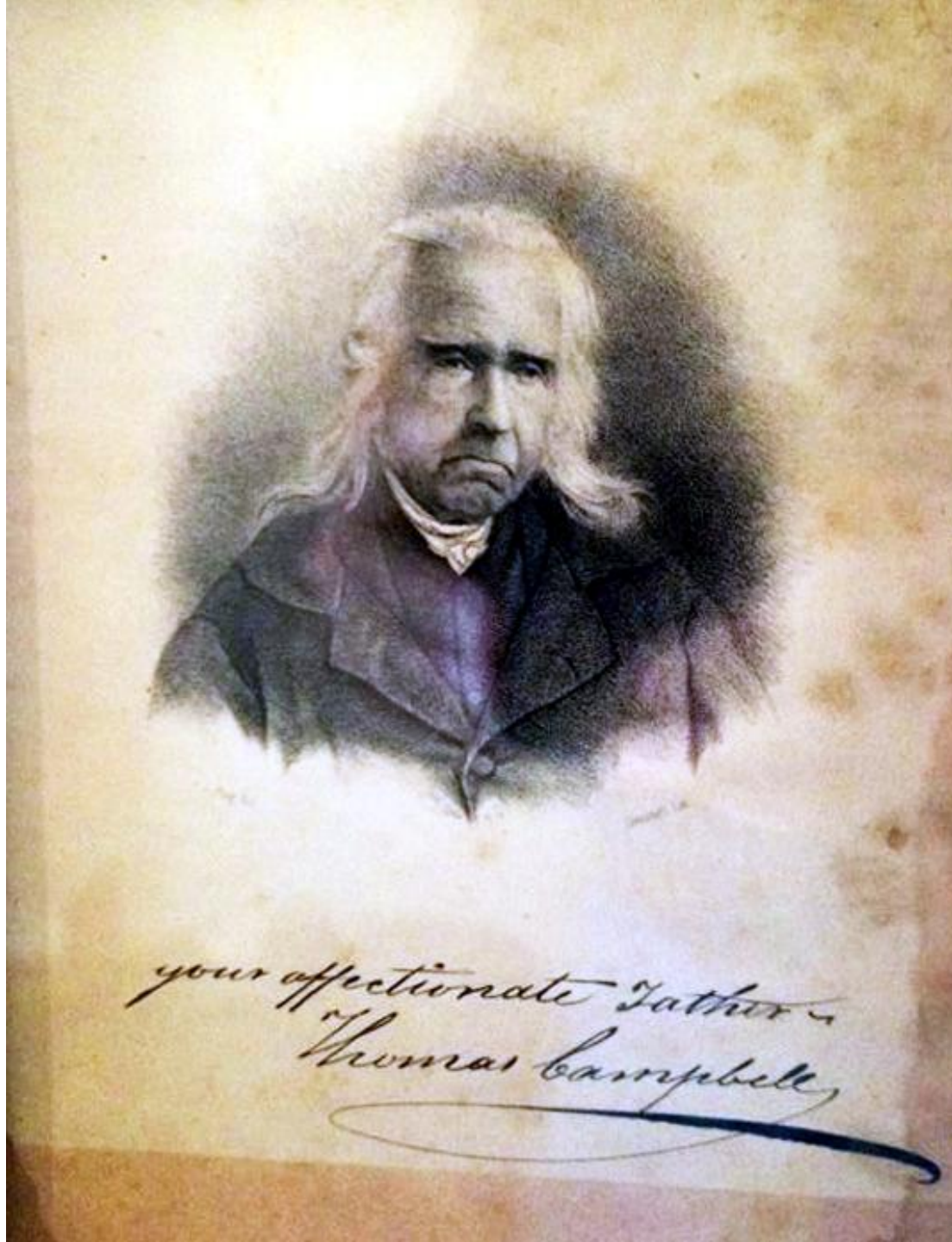
더글러스 A. 포스터 지음
정남수 · 조동호 옮김

 쿤란출판사





**알렉산더 캠벨, 미국에서
부친 토마스의 개혁운동에 합류**



- 곧이어 이 독실한 아버지가 배경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 똑똑한 아들, 이 명민한 성경학자, 이 위대한 작가이자 강력한 토론가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그후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는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 교회 (Brush Run Church)**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 교회는 베다니(Bethany, West Virginia)로부터 약 8K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1842년 웨스트 미들타운으로 옮겨진 후 대장간과 우체국으로 사용되었던 시절의 브러시 런 집회소 모습의 그림



The present Brush Run Church located at the Campbell Homestead, Bethany, W. Va. It was moved there from its original site about five miles from Bethany in 1912. The weather boarding and outside are modern; only the timbers supporting the roof and walls in the interior are from the original Brush Run Meeting House. The floor is about to cave in.

The Christian Evangelist, September 8, 1938

Brush Run Meeting House



1912년 캠벨의 서재 근처에 재건축된 후, 노후화된 모습의 브러시 런 집회소

브러시 런 예배당 모습과 표지석
(1811년 5월 4일 창립)



브러시 런 집회소의 본래 건물은 해체된 후 **1912년** 캠벨의 저택 마당에 지어졌다. 사진은 **1938년**의 모습이다. 이 가운데 내부의 지붕을 받치는 기둥과 벽만 브러시 런 집회소 건물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브러시 런 집회소 건물은 여러 번 옮겨졌다. 건물을 매입한 George McFaddon은 **1842년** 웨스트 미들타운으로 옮겨서 대장간으로 사용하던 중 **1869년** 우체국장으로 임명된 후 우체국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물을 옮겨 지어준 William Anderson에게 기증하였다. 앤더슨은 이 건물을 자신의 농장에서 헛간과 마구간으로 사용하였다. **1909년** 100주년 기념 대회 때 방문객 일부가 재건운동을 시작하여 남은 목재들로 캠벨의 저택과 서재 사이에 옮겨 지었으나 노후화로 **1990년**에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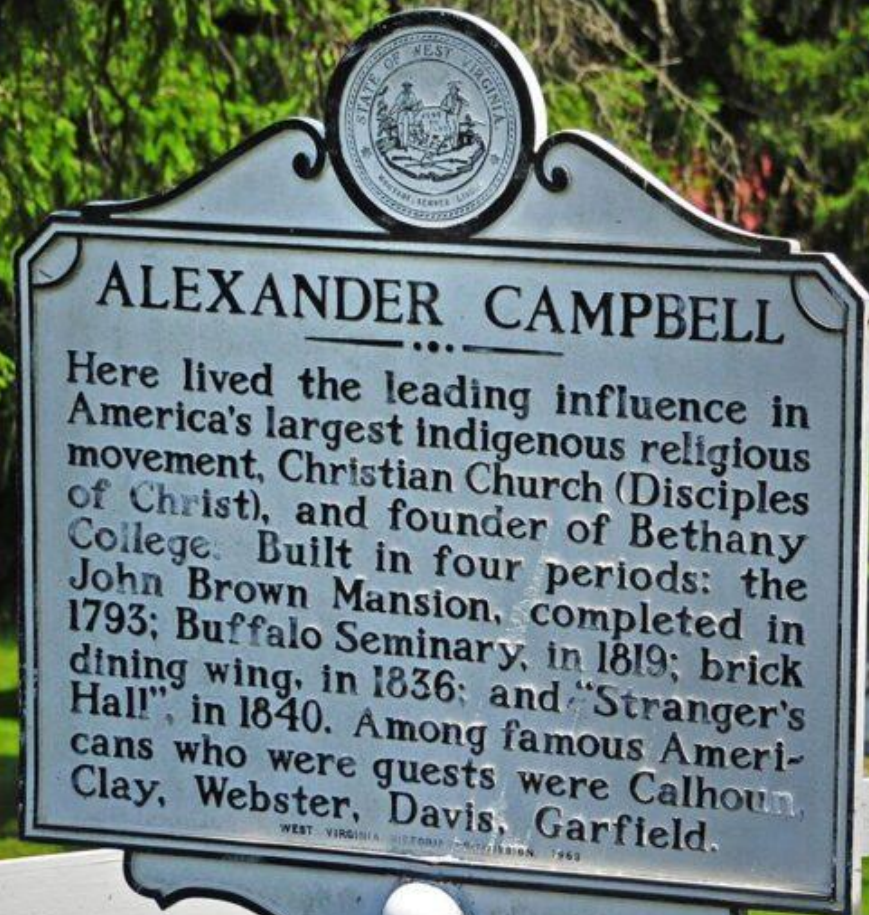


'브러시 런 그리스도의 교회' 표지석, 1811년 5월 4일 설립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베다니 소재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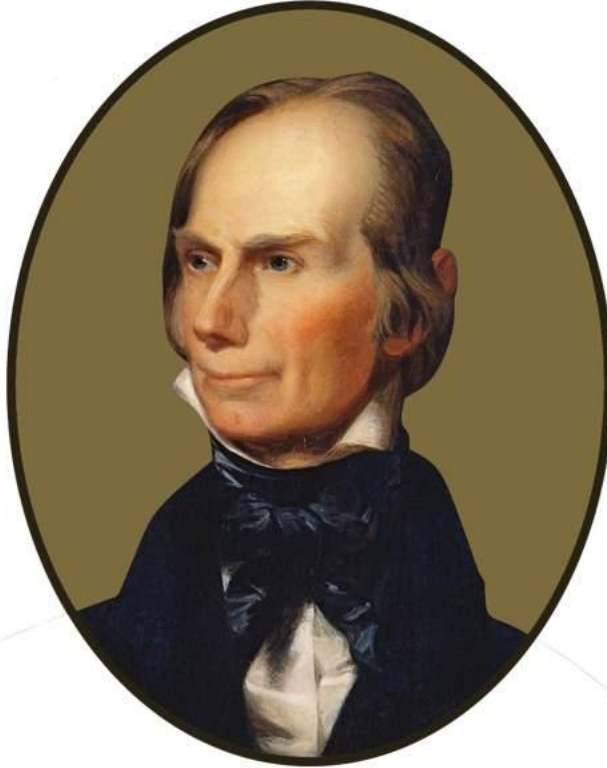
캠벨의 저택은 본래 1793년 완공된 존 브라운의 저택이었다. 캠벨은 이 건물에서 1819년에 버팔로 학교를 개교하였다. 1819년에 식당을, 1840년에 손님을 위한 홀을 증축하였다. 이 저택에 손님으로 머물렀던 유명 인사들에 칼훈, 클레이, 웹스터, 데이비스, 훗날 제20대 미국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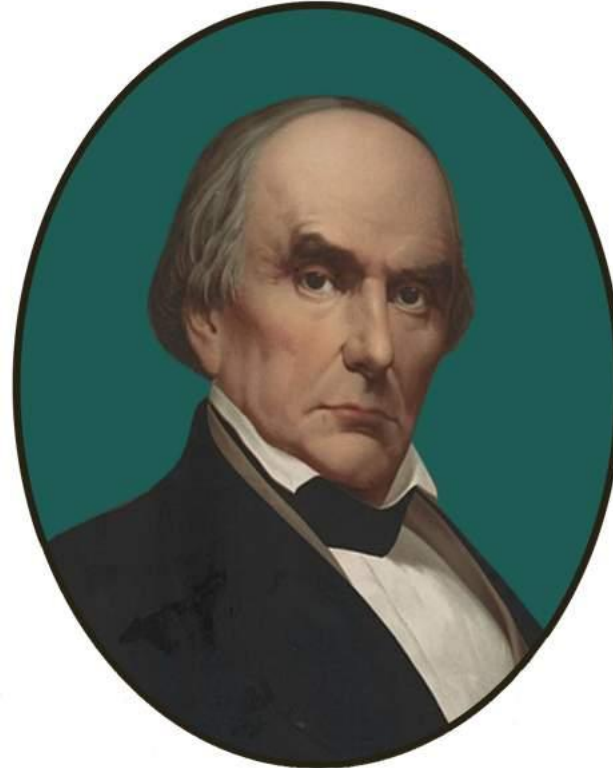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에 머물렀던 유명 정치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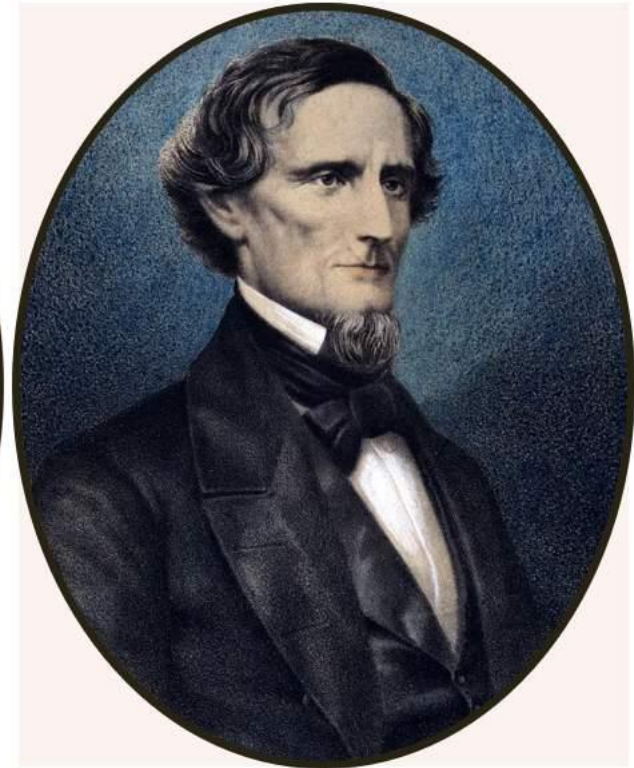
존 칼훈
1782-1850
제7대 부통령
사우스캐롤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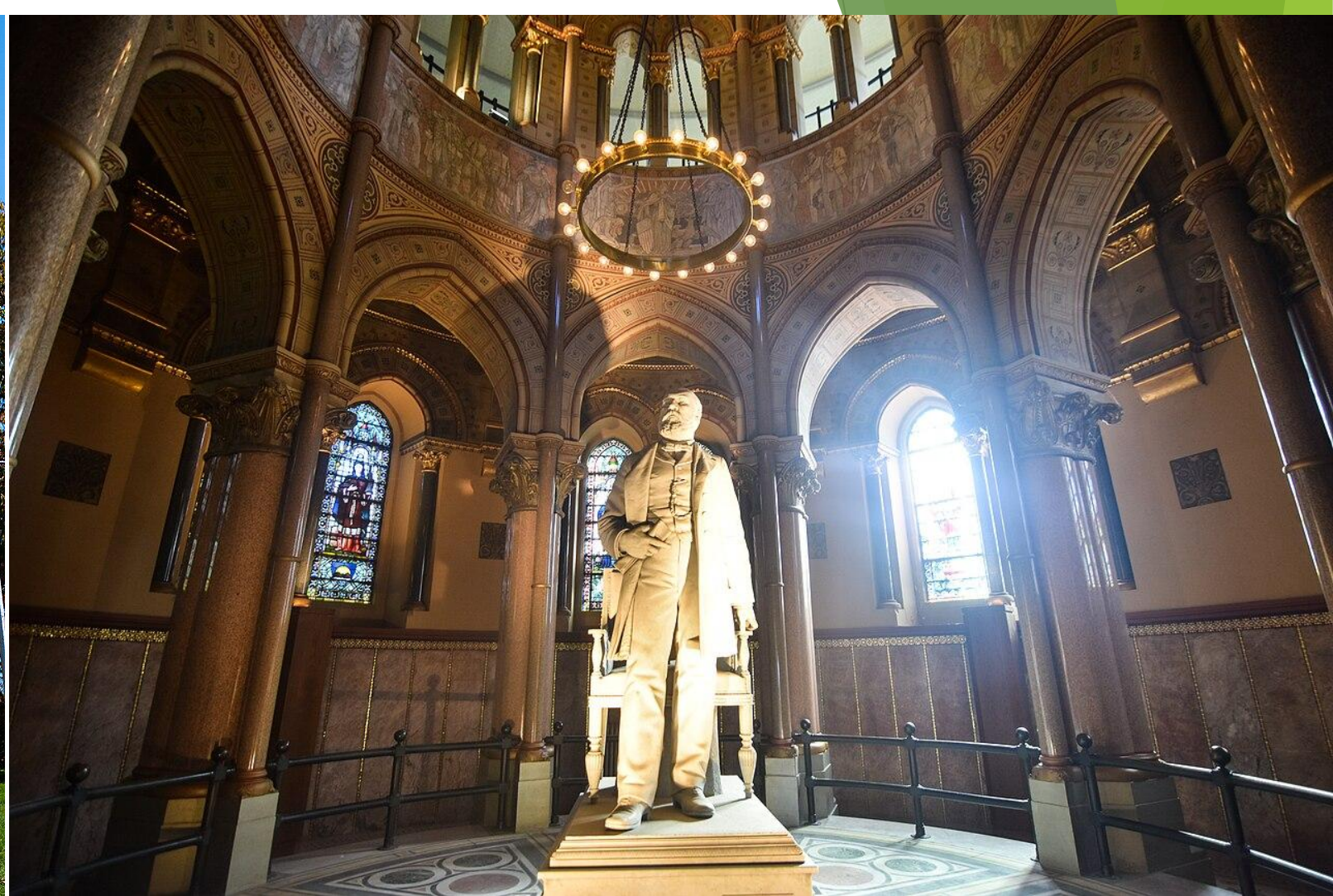
헨리 클레이
1777-1852
제9대 국무장관
켄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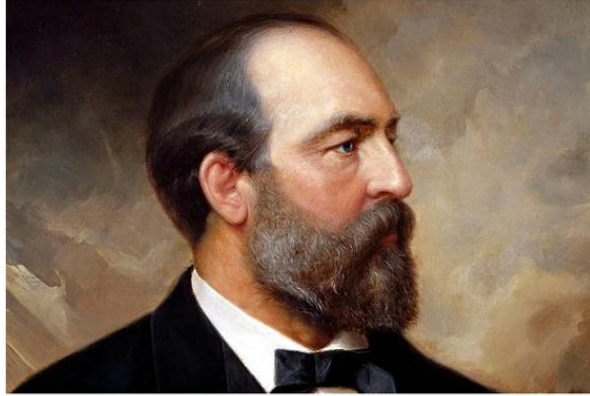
대니얼 웹스터
1782-1852
제14, 19대 국무장관
매사추세츠



제퍼슨 데이비스
1808-1889
훗날 남부연합
대통령을 역임



제임스 A. 가필드(James A. Garfield, 1831-1881, 제20대 대통령)는 1890년에 건립된 레이크 뷰 공원묘지(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세워진 웅장한 기념관에 그의 부인 루크레티아 및 딸 부부와 함께 안장되어 있다.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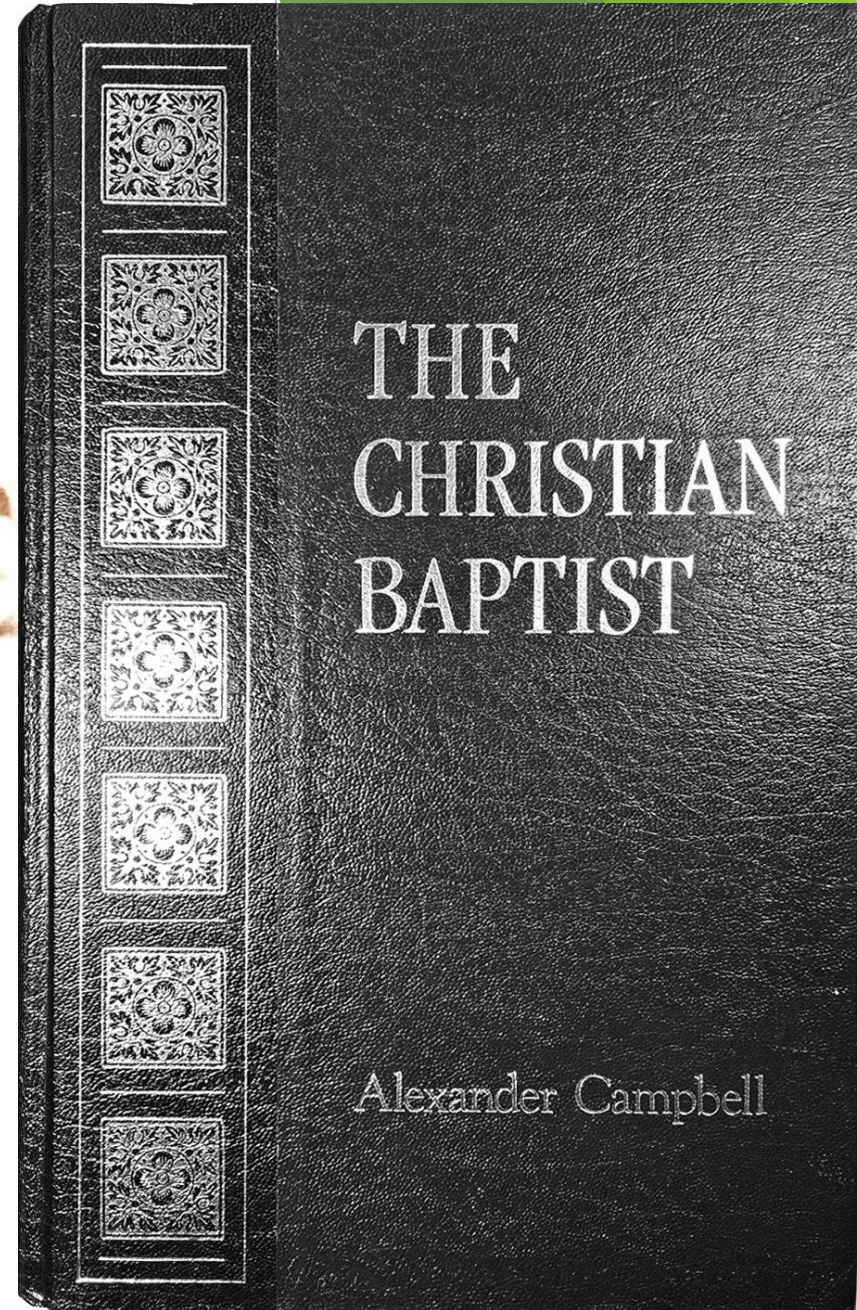
1.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또는 제자들(Disciples)이라고 부릅니다.
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교 체계의 근본적인 진리로 간주합니다.
4. 우리는 회심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6. 우리는 장차있을 악인들의 형벌과 의인들의 상급을 믿습니다.
7. 우리는 신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8. 우리는 매 주일 주의 만찬의 제정을 지킨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union)을 간구합니다.
10.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규칙서(discipline)입니다.
11. 우리는 모든 의식들(ordinances)이 사도시대에서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합니다.

Study used by Alexander Campbell
Built in 1836, Bethany, W. 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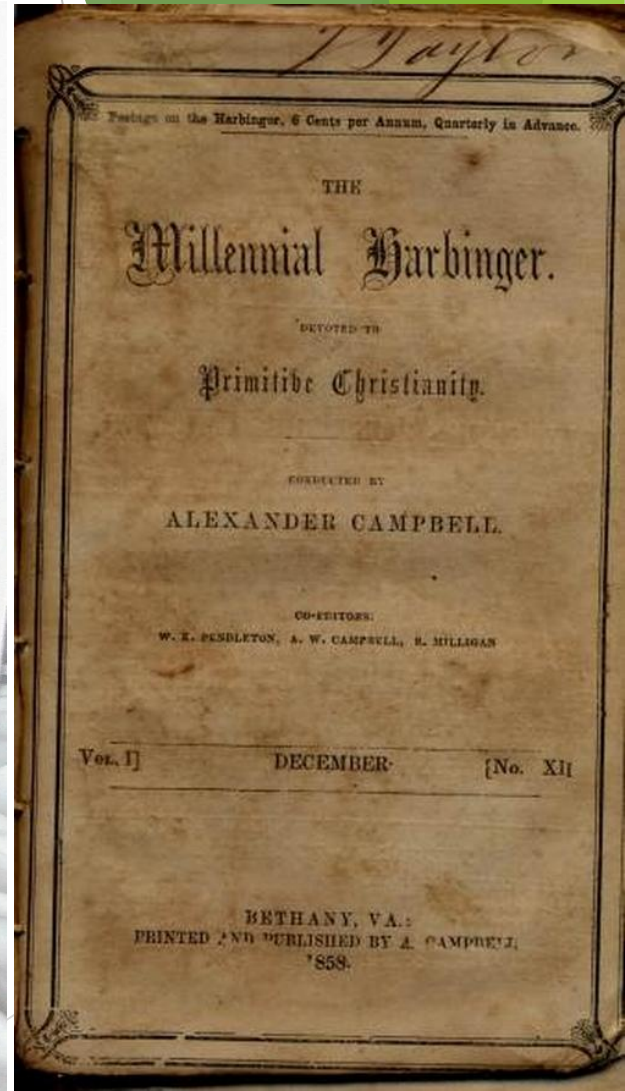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서재(1836)

**알렉산더 캠벨이
1823년 8월
3일부터 1830년
7월 5일까지
발간한
월간
<그리스도인
침례>지 전 7권
및
1983년에
출판된 합본**



알렉산더 캠벨이
1830년 1월
1일부터
사후(1866)
1870년까지
발간한 월간
<천년왕국의
선구자>지
및
1858년 12월호
표지



총 41권



BETHANY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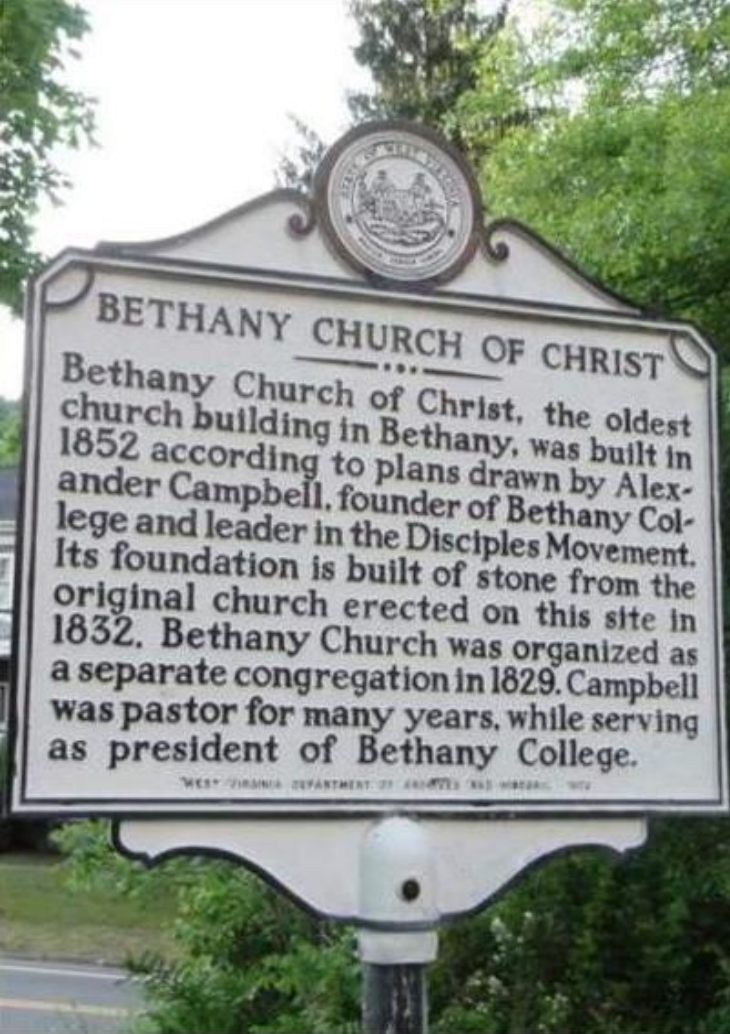
Oldest degree granting institution in West Virginia, the College was chartered in the Old Dominion in 1840, succeeding Buffalo Seminary established by Alexander Campbell in 1818. Remaining open through the Civil War, it was the only college operating in the new state in 1863. Women were admitted in 1877 and the school was among the earliest accredited colleges in the nation.

WEST VIRGINIA ARCHIVES AND HISTORY, 1895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 조직.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베다니에 소재한 베다니 대학 메인 홀 전경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오래된 학위 수여 기관인 이 대학은 1818년 알렉산더 캠벨이 설립한 버팔로 학교를 계승하여 1840년 올드 도미니언(버지니아 주)에서 인가를 받았다. 남북전쟁 중에도 문을 열었고, 1863년 새로운 주에서 운영된 유일한 대학이었다. *1877년에 여성의 입학이 허가됐으며,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인가를 받은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다수의 미국 대통령들이 이 대학을 방문하여 채플에서 연설하였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베다니에 소재한 베다니 그리스도의 교회 전경

베다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며 1852년에 건축되었다. 건물의 기초는 1832년 이 자리에 세워진 원래 교회의 돌로 지어졌다. 베다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1829년에 별도의 교회로 조직되었다. 캠벨은 베다니 대학의 학장 겸 이 교회의 목사로 다년간 섬겼다. 문이 두 개인 것은 남녀 출입구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fully guided and instructed the head and heart of a tender mother's care, made impressions on which strengthened with his years, and remained with all his heroic life. He was classically educated at Glasgow. His training in that institution was very thorough, and though young in years when he completed the University course, he was admirably prepared to take the place to which his integrity and talents called him.

The father preceded the son to the United States, the latter being in the University when Thomas Campbell sailed for America. Completing his course at school in 1808, the son sailed for the United States in 1809, landing at New York in October of that year. From that city he proceeded to join his father, at Washington, Pa.

His superior education and great power as a preacher soon won for him a place in the front rank of American logicians and pulpit orators; and it was not long before thousands of people, in distant localities even, had the opportunity to hear and admire him.

Thomas Campbell was a Scotch Presbyterian, and his son was educated in the faith of that Church.



ALEXANDER CAMPBELL, FOUNDER OF THE CHURCH.

But Alexander Campbell was a man of investigation and of independent thought. And the same was true of his father. By both the study of the Scriptures was pursued constantly. Both were conversant with the translations and the original. Their object was simply to learn precisely what the Scriptures taught.

Alexander (as did his father) became convinced that many errors had crept into Protestantism. That there was a departure in all the churches, of that time, from Primitive or New Testament Christianity, he believed on the evidence before him. And that these errors could be corrected only by a return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he Church established by Christ and his Apostles, he as firmly believed. He was not ambitious to be a leader or the founder of a new religious movement; but, to his mind, there was a necessity for some one like a Luther or Wesley to call the Christian world back to the Holy Scriptures. He taught that the Word of God alone was the all-sufficie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for the Christian world.

On the question of baptism, the communion,



HOMESTEAD OF ALEXANDER CAMPBELL, NEAR BETH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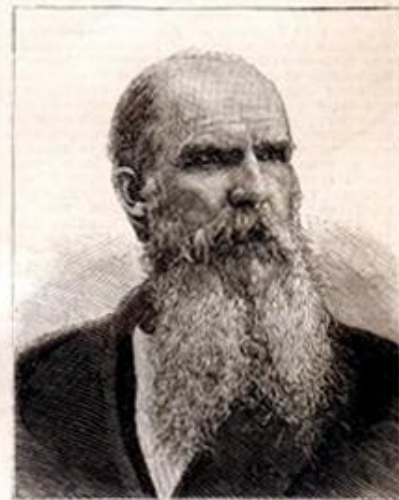
VIEW OF BETHANY COLLEGE.

WEST VIRGINIA.—ALEXANDER CAMPBELL, THE FOUNDER OF THE CHURCH OF THE DISCIPLES, AND THE COLLEGE AT BETHANY,

in Copenhagen, Denmark; Paris, France; Copenhagen elsewhere. Fourteen missionaries set sail for India on New York not long since.

publish twelve or fifteen weekly religious newspapers, a large number of monthlies, a quarterly, Sunday school papers, etc. Perhaps their leading papers in this country are the *Christian Standard*, of Cincinnati, and the *Christian Evangelist*, of St. Louis. The *Commonwealth* is their leading paper in England. In educational matters, this people have been as enterprising as in other regards.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Andes Universities* (Butler University, at Irvington, Ind.; Drake, at Des Moines, Ia.; and Kentucky University, at Lexington, Ky.); with a large number of colleges, seminaries, orphan schools, etc. Hiram College, Hiram, O.—at one time presided over by the late President Garfield—is among the number. James A. Garfield lived and died in the "fellowship and communion" of this Church.

Bethany College is the oldest literary institution of this people. The college proper, which succeeded the old Buffalo Academy, was founded in 1840, and was presided over by Mr. Campbell until



REV. DR. W. K. PENDLETON, PRESIDENT OF THE COLLEGE.

his death in 1866. The college has suffered several times by fire, but the present buildings constitute an imposing pile. The buildings stand on a prominence overlooking the village of Bethany, and will accommodate five hundred students.

Students attend this college, not only from all parts of the United States, but from Europe, Austral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Alumni now number five hundred and eighty-six, many of whom are filling places of responsibility and trust in the learned professions.

Since the death of Alexander Campbell, Bethany College has been presided over by Dr. W. K. Pendleton, a gentleman of superior culture, great learning and large experience. The mantle of the first President of the College could have fallen on no more worthy shoulders than those of Dr. Pendleton. As a writer and preacher he has but few equals, and as a presiding officer no superior. He took up the work where the great founder of the school left it, and has carried it forward successfully during all thes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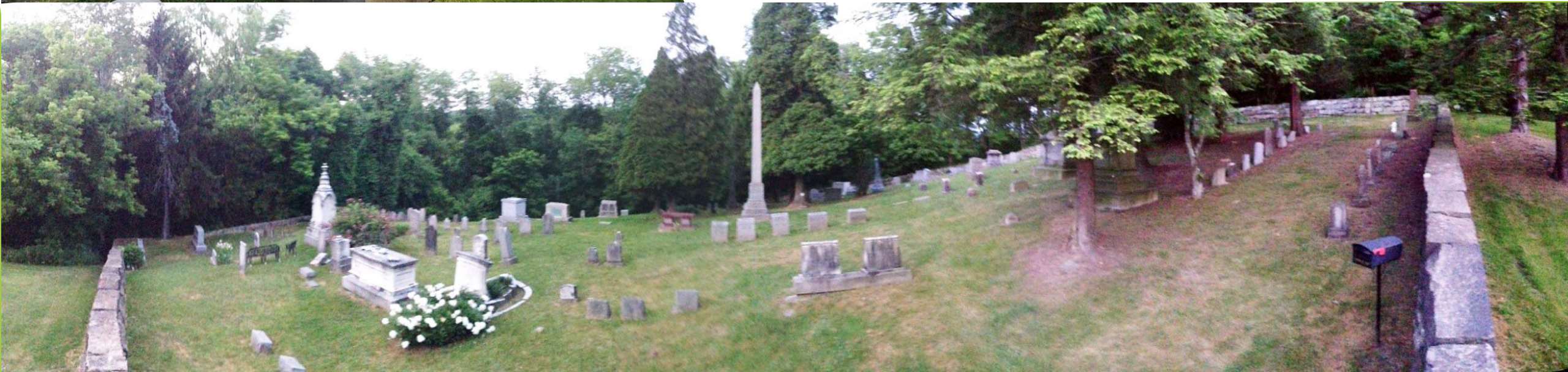
But to return to Mr. Campbell. In the Winter of 1829-30, he was a member of the convention ca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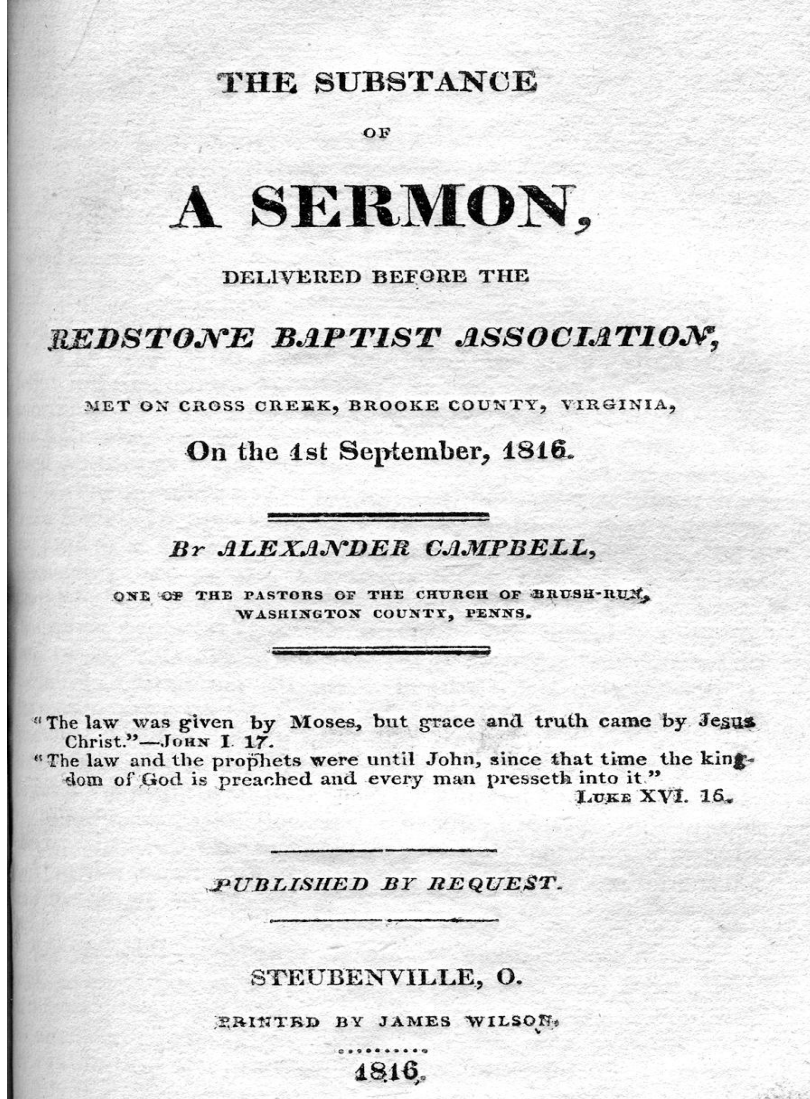


In Memoriam
Alexander Campbell
Defender Of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Founder Of
Bethany College
Who Being Dead Yet Speaketh
By His Numerous
Writing And Holy Example
Born In County Of
Antrim, Ireland
Sept. 12, 1788
Died At Bethany, Va
March 4, 1866

추모
알렉산더 캠벨
성도들에게 선포한 신앙의 수호자
베다니 대학의 설립자
죽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저술과
거룩한 모범으로 말씀하고 계심
1788년 9월 12일
아일랜드 앤트림 카운티에서 출생
1866년 3월 4일
버지니아 주 베다니에서 사망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베다니에 소재한
캠벨 공원묘지의 캠벨의 묘비에 새긴 내용





캠벨은 논쟁적인 '율법에 관한 설교'를 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둘러 준비했던 원고를 토대로 좀 더 발전된 글을 작성한 뒤 그것을 인쇄했다. 그는 후에 1846년 <천년왕국의 선구자>지에 그 설교를 다시 게재하였다.

율법에 관한 설교

- '율법에 관한 설교'는 1816년 9월 1일 주일 아침 캠벨이 27세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아닌 크로스 크릭(Cross Creek)에서 모인 레드스톤 침례교회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연례회의 때에 행한 설교로 침례교 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레드스톤 침례교회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은 널리 알려진 캠벨의 설교를 듣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주최 측 교회의 **장로 존 프리처드**에 의해 좌우된, 캠벨의 몇몇 반대자들이 오하이오에서 방문해 온 한 다른 설교자에게 설교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 그 설교자가 병이 나자, 캠벨에게 호의적이던 다른 지도자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이 발탁된 대체자라고 알려주었다. 캠벨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자신이 그 자리를 메꿔 주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설교에 동의하였으나, 다만 프리처드가 자신에게 직접 요구해야만 한다는 조건으로 - 그는 동의했다.
- 캠벨의 이후 설명에 의하면, 그는 **준비할 시간이 고작 몇 시간밖에 없었다.** 그는 서둘러 몇 가지 메모를 적은 뒤, 훗날 '율법에 관한 설교'로 알려지게 된 설교를 했다.
- 그의 요점은 이랬다: **옛 율법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에 의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므로 구약성서는, 이를 한 마디 진실로 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캠벨에게 있어서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다. 그는 이 방향에서 공헌했던 개혁신학의 흐름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그는 1813년 이전에 최소한 한 번 이 주제로 이미 설교했었다.

- 그는 청중들이 “**그 율법**”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도덕법, 의식(儀式)법, 사법** 사이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형성된 그 구별은 비성서적 인간의 고안이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반대로, 성서가 이를 사용했던 바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전체 율법이었다.** *개혁주의에서는 도덕법(예: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법으로, 의식법과 사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법으로 봄.
- **그의 목표는** (구 언약에서 할례의 의식에 유사성이 있다 해서 행해지는) 유아 세례, 설교자들에게 바치는 십일조, 주의 만찬을 대하는 자세로써 금식, 구 언약에 근거한 다른 의식들과 같은 행위의 정당화로서 **구약성서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었다.**
- **침례교 신학은 분명히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캠벨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내세웠던 그런 뚜렷한 구별은 하지 않았다.**

-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면, 그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예상하면서, 캠벨은 로마서 6:15를 인용하였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 논증은 대부분 사람에게 매우 분명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듣자 하니 이것이 그가 “학자풍의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딱지를 붙였던 침례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 **구 언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다가오게 할 수도 없거니와 혹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능력도 상실했다. 따라서 교회 삶을 규정할 힘도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 캠벨의 입장은 침례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과 정면으로 모순되었다. 그 고백서대로라면 레드스톤 침례교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 고백서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

- 그 고백서는 십계명을 “의의 완벽한 규율”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각종 의식법을 제거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규칙으로 구체화 된 **구약의 도덕법을 이행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1815년 브러쉬 런 교회가 협의회에 가입할 당시 협의회 내에 반서명 정서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서명을 요구 받지 않았다.
- **캠벨의 관점은 (처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역사가 있었다.** 초기 교회, 재침례파,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파 교회들은 모두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급진적인 차이를 믿었다.
- 그의 부친 토마스도 <선언과 제언>에서 **구약성서를 그리스도인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권위 있는 경전으로 언급함으로써 신약성서와의 구별을 명확히 했다.**

- 그 고백서는 십계명을 “의의 완벽한 규율”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캠벨의 입장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 언약과도 유사했다.**
- 그러나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 언약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서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쳤다. 이에 비해 캠벨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나서야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특징적으로, 캠벨은 이들 문제에 관한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공정하다고 선언하고, 그의 결론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귀를 가졌던 “편견 없이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당연할 것이라 했다.

- 그의 설교는 청중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 **그러나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을 엄격히 고수했던 전통적인 침례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 캠벨의 구 언약과 신 언약의 예리한 구분은 그 자신의 설명을 빌리자면, **그의 개혁에 중심 부분이 되었다.**
- 1846년에 그 설교를 재인쇄하면서 쓴 서문에서, 그는 지적인 독자라면 "그날 이후 현재까지 근대 기독교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글의 특징을 나타냈던 실체의 요소들을 거기서(율법에 관한 설교) 발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그 구별은 장로교 목사 **존 워커와의 세례 논쟁**(1820년 6월 19-20일)에서 그의 논거에 핵심이 되곤 하였다.

율법에 관한 설교

[http://kccs.info/율법에 관한 설교.pdf](http://kccs.info/율법에_관한_설교.pdf)

역자 해설

이 유명한 설교는 1816년 9월 1일 주일 아침 캠벨이 27세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아니한 크로스 크릭(Cross Creek)에서 모인 레드스톤 침례교회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연례회의 때에 행한 것이었다. 후에 캠벨은 자신을 “지금의 개혁운동”(the present reformation)에 뛰어들도록 힘을 실어준 것은 이 설교에 관해서 일어난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이곳에 실린 캠벨의 설교는 생략이 많은 요약본이지만 캠벨의 핵심 요점들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캠벨은 후에 이 설교를 팸플릿으로 출판하였고, 또 1846년 9월판 <천년왕국의 선구자>(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 September 1846, 493쪽 이하>에도 실었다.)

율법에 관한 설교(The Sermon on the Law)

본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롬 8:3).

- **어휘들은** 개념들과 사상들의 표식들입니다. **어휘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개념들이나 감정들은 전달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쉽게 되는 **어휘들은** 다른 연관된 상황들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 가운데 하나는 쉽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휘의 다양한 사용들과 형용어구들의 결과에서는 그 어휘에 따라붙는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율법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성경말씀의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하면, 이런 종류의 모든 어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 본문 구절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밝혀내고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1.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야 합니다.
3. **율법(the law)**이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제들에서 분명하고 절실하게 또 전적으로 공평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와 같은 결론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포함된 교리를 의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로, 본문의 말씀과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율법(the law)이란 말에 어떤 개념들을 첨부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율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법”(a rule of action)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때까지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전체 계시를 랍비들 혹은 율법사들의 전통들과 계율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 정관사를 붙이면 의미를 바꾸거나 혹은 적어도 그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the law)이란 말들은 어느 정도 설명 없이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저술들을 “율법서”라고 불렀으나, 율법이란 말이 갖는 본래의 뜻으로 그 단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 사후(930 BC), 아비아의 통치 때(역대기하 14:4, 913-911 BC)에 이르러서 비로소 율법이란 말이 모세에 의한 전 율법시대(the whole legal dispensation by Moses)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때까지는 율법이란 말이 어느 정도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를 입증할만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한정된 정의 없이 구약성경에서 약 30회 가량 사용되었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지시하는 형용어구들에 있어서조차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 천국 교리들이 전파되고 신약성경에서 모세에 의한 시대경륜(Mosaic economy)과 비교되기 시작할 때에 율법(*the law*)이란 말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어떤 구별된 형용어구나 한정된 정의 없이 사용될 때에는 그 말이 언제나 모세에 의한 전 **율법시대**(경륜) (the whole legal or Mosaic dispensation)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통의 의미에서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대략 150회 정도 나타납니다. -중략-
- 나는 모세에 의한 전체 율법 혹은 시대경륜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세의 법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나 구분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나누는 일은 사도시대에는 없었던 일이고,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결코 사용되지도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하여 사도들이 전한 정확한 교리지식을 얻는데 전혀 무가치합니다. -중략-

-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을 당황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게 한 것은 율법을 쇠신하려 한 오늘의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몇몇 십계명의 교훈들이 재천명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진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략-
- 이 부분의 주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원리들 즉 모세의 율법에 관한 우리의 관찰 속에 결코 포함시키지 아니한 계명들과 법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것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는 성경 속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초(강령)들입니다. -중략-

- 그러므로 성경말씀 속에서 이 교훈들은 모든 법과 예언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들 예수의 계명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때때로 율법시대(경륜)라 불리는 것들을 변형(수정, 파생)한 전체를 포함합니다. -중략-
- 우리는 이제 율법(the law)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적해내려고 합니다.
- 첫째로, 율법은 의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의와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우리가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도 소유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것을 율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밝힌 사도의 이 증거들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의와 영생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략-
- **둘째로, 율법은 죄의 악성과 결점을 들춰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것 아래 있는 것들 즉 어떤 행위들은 죄가 많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죄 많은 행위들에 율법은 해설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는 도둑질이라 불렀고, 둘째는 살인이라고 불렀으며, 셋째는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해롭고,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악성이 얼마나 넓고, 그것들의 결점이 얼마나 큰지를 율법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후대를 위해 남겨졌고, 다른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 셋째로, 율법은 이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적절한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법칙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단지 일부분에게 주어졌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대나라에 주어졌고, 다른 아무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중략-
-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에게조차도 율법은 생명을 주는 가장 적절한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법칙으로써 모범적 행동이 훈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주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은 완전한 산 모델이나 모범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아래서 가장 모범적인 특성들은 그것들의 뚜렷한 불완전성이었습니다.

- 일부다처, 이혼, 노예, 보복 등이 그 율법아래서 눈감아지는 만큼 오랫동안 율법에 가장 잘 따르는 자들의 삶이 빈한 불완전성들로 얼룩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략-
-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 제안한 세 번째 주제로 바삐 옮기려 합니다. 그것은 **율법(the law)이 이들 목적들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율법이 이들 목적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율법의 결함들은 하나의 상관적 종류(a relative kind)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약하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기초적이고 그림자적인 다가올 선한 것들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중략- 만일 율법이 결점을 갖지 않았다면, 복음이 설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략-

- 이제 우리는 서두에서 제안한 네 번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the law)의 상관적 결점들(relative defects)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심으로 그 모든 결점들을 제거하시고, 죄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저주하십니다. -중략-
- 예수는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곧 아브라함의 모든 신령한 씨가 의와 영생을 발견합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율법의 행위나 지킴에 의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약 및 중략-

- 이제 남은 것은 ... 생명을 주기에 적절치 아니한 **율법의 실패가 어떻게 구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모범이 훈계보다 더 능력 있는 교사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까지 결코 목격되지 않았던 완전한 인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계에 그것들이 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형태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략-
-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솔직하고 반성하는 마음에 **그들 자신들을 분명하고 절실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결론들**을 위의 전제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 첫째,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율법과 복음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이 뒤따릅니다.

- 율법과 복음보다 서로의 의미에 있어서 더 별개인 두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하에 서로 상반되게 구별됩니다. -중략-
- 둘째, 우리는 이제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도께서 이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들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진술한 것들과 같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사도는 그들이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에서 해방되었고," "법에 대하여 죽었고," "법에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중략-
- 셋째,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 이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위임과 그 위임에 따라서 그들이 실천한 것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설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목회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중략-
- ...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설교준비나 혹은 복음을 영접케 할 목적으로 율법을 설교한 예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 넷째, 앞서 언급한 전제들로부터 연역해낼 수 있는 네 번째 결론은 율법이나 구약성경에서 나온 모든 논쟁들이나 동기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권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사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한 준비로써 거룩한 날들이나 종교적인 금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 칠 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들에도 들어가기 위해서, 민법으로 어떤 종교형태를 세우기 위해서 -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관습들을 따르거나 모방하는 것에 신명나도록 유대법에서 빌려온 모든 이유들과 동기들이 기독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 반대되며, 근본에 무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결합되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것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경배하며, 그분을 위대한 예언자로 받아드리며, **율법에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을 우리들의 의의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분의 모든 훈계들과 그분이 제정하신 것들에 가장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중략-
-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그분에 합당하게 걷도록 합시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에게 책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만약 누가 여전히 반율법주의의 흔해빠진 권고를 해야 한다면, 혹은 은혜가 풍성키 위해서 우리가 죄에 살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선한 것이 찾아오도록 악을 행했다면, 혹은 믿음으로 율법을 무익하게 했다면,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존중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하게 합시다. -종략-
-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걷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모든 길들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음을 아셔야합니다! 아멘.